

弘報室 : (02)
6050-3442~6

이 자료는 3/23(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3/22(火) 11:00부터

※ 문의 : 지속가능전략팀 임경진 팀장(6050-3815), 박정호 선임연구원(6050-3807)

대한상의, 2016 CSR 5대 이슈·2대 트렌드 제시

- CSR 실무자·전문가 100여명 대상 조사... 올해 CSR 성공 키워드는 ‘S.U.C.C.E.S.S’
- 5대 이슈 :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신기후체제(Climate Change), 공유가치창출(CSV), 윤리경영 고도화(Ethical management)
- 2대 트렌드 : 기후변화 양극화 등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제시,
환경·사회적 가치 위한 혁신 전략(Strategy) 마련 필요
- 商議 “비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창출의 토대로 삼아 CSR 활동 강화해야”

2016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성공을 위한 5대 이슈, 2대 트렌드를 담은 키워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국내기업 CSR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국내기업 CSR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CSR 성공키워드로 ‘S.U.C.C.E.S.S’를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SUCCESS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신기후체제(Climate Change), 공유가치창출(CSV), 윤리경영 고도화(Ethical management),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Solution), 지속가능한 혁신전략(Strategy)의 첫 머리글자를 따왔다.

2016 5대 이슈 :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신기후체제(Climate Change), 공유가치창출(CSV), 윤리경영 고도화(Ethical management)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올해 CSR 5대 이슈로 공급망 관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신기후체제, 공유가치창출, 윤리경영 고도화를 꼽았다.

전체 16개 항목 중 우선 순위에 따라 3개 이슈를 고르는 설문 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이 총 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신기후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80점), ‘공급망 관리’(62점), ‘공유가치창출’(46점), ‘윤리경영 고도화’(38점) 순이었다. 이밖에 ‘EU의 비재무성과 공시’(27점), ‘정부,NGO와의 파트너십’(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중복응답,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부여 :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총합으로 순위 도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빈곤 종식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표> CSR 주요 이슈 설문 결과

이슈	총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84
신기후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	80
공급망 관리(SCM)	62
공유가치창출(CSV)	46
윤리경영 고도화	38
EU 비재무성과 공시	27
정부,NGO와의 파트너십	25
사업 임팩트 평가	22
인권 경영	21
빅데이터(기업정보 디지털화)	19
비용효과적 사업 발굴	14
해외 사회공헌 활동	13
양질의 일자리 창출	11
통합 보고	10
사회책임투자 대응	8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의 총합으로 순위 도출

신기후체제(파리협정)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이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고,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데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한다는 합의를 골자로 한다.

대한상회의는 “유엔이 향후 15년간 추진할 목표와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 선언 등의 새

로운 흐름들이 올해 새롭게 구체화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는 동반성장과 윤리경영이 여전히 정부와 사회 등의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CSR 주요 이슈에 대해 기업 실무 담당자와 전문가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기업 실무자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으나, 전문가들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대한상의회는 “전문가들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향후 15년 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 이슈로 판단한 반면, 기업은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신기후체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2대 트렌드 : 기후변화양극화 등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제시,
환경·사회적 가치 위한 혁신 전략(Strategy) 마련 필요

대한상의회는 CSR 성공을 위한 두가지 핵심 트렌드도 제시했다.

상의회가 꼽은 첫번째 트렌드는 ‘해결자로서의 기업 역할 증대’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기후체제의 논의 과정에서도 국제사회는 환경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회는 “저성장기조와 함께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국내기업 대다수가 CSR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며 “기업이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CSR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번째 트렌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 전략의 강화’이다. 앞으로 기업의 신성장 동력은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혁신전략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게 세계적 트렌드다.

대한상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고, 생산량도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까지 기업의 혁신전략을 확대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과거 대내외 평판 제고와 리스크 관리 측면을 중시하였던 기업의 CSR 활동 영역이 기후변화 대응과 양극화 완화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은 CSR을 비용적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 창출의 토대로 인식하고 CSR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 설문 조사 표본 : 기업 CSR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 115명
- ▷ 유효 응답 : 80명
- ▷ 조사 기간 : 1/11(월)~2/1(월)
- ▷ 조사 방법 : e-mail 및 인터뷰